

쌀값 하락·AI...농가소득 5년만에 뒷걸음

지난해 전남 평균 3500만원... 빛 전국 4번째로 많아

어가 평균 소득 4707만원... 농·어가 격차 더 벌어져

전남지역 농가는 벼는 돈과 자산은 적고 빛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벼농사 중심의 농가가 많은데 인건비 등 생산비는 꾸준히 올랐지만 수년째 쌀값은 제자리 걸음을 한 탓이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소득은 3719만원으로 전년(3721만원)보다 0.05% 줄었다. 농가소득 증가율이 감소한 것은 2011년(-6.1%) 이후 처음이다.

전남의 농가소득은 지난해 3500만원으로 지난 2015년(3441만원)에 비해 소폭 올랐지만 자산평균은 2800만원으로 전국 평균 4743만원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채도 평균 2371만원으로 제주, 경기,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빛이 많았다.

축산물 등으로 벌어들인 농업소득이 1년 전보다 10.6% 줄었다. 농작물 수입(-6.2%), 축산수입(-12.4%)이 전년보다 모두 감소한 탓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쌀값이 하락하고 지난해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여파로 축산물 수입이 줄었다"며 "특히 소의 경우 가격이 비싸다 보니 소비 위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업 총수입 대비 농업소득의 비율인 농업소득률은 33.4%에서 32.2%로 하락했다. 농업경영비는 2121만원으로 5.3% 줄었다.

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농가 소득이 774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수농가(3443만원), 채소 농가(2928만원), 논벼 농가(2211만원) 순이었다. 축산농가는 가계지



출(3870만원), 자산(7억8256만원), 부채(7153만원)도 가장 많았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50대가 소득(6315만원), 가계지출(5035만원), 자산(6억6419만원), 부채(5394만원)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지난해 어가의 평균소득은 4707만원으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은 전년보다 3.9%포인트 증가한 56.5%였다. 농업 외 소득 비중은 전년보다 2.2%포인트 줄어든 24.5%였다.

지난해 어가의 평균 농업소득은 해조류

등 양식수입이 늘면서 2659만원으로 전년보다 15.2% 증가했다.

어업 총수입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어업소득률은 45.6%에서 48.6%로 상승했다.

어업 총수입이 2000만원 이상이면 어업 총수입이 어업 외 수입보다 많은 '전문어가'

의 평균소득은 7760만원이었다. 전문어가는 소득과 지출, 자산, 부채 등이 모두 다른 어가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어가 소득과 부채는 어가 평균의 1.6배 수준이었다.

반면 전문어가 아닌 일반어가의 평균 소득은 1602만원으로 소득에 비해 가계 지출, 자산, 부채 등이 더 많았다.

양식어가 소득은 7185만원으로 소득과 지출, 자산, 부채 등이 어로 어가에 비해 많았으며 특히 소득은 어로 어가의 1.9배 수준이었다.

오광록기자 kroh@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73.74 (+8.70)
- ↑ 금리 (국고채 3년) 1.70% (+0.02)
- ↓ 코스닥 626.62 (-8.34)
- ↓ 환율 (USD) 1129.90원 (-4.50)

한전·전남도 '실감미디어' 산업육성

증강현실 등 공동 기술개발 MOU... 26~27일 컨퍼런스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26일~27일까지 이틀에 걸쳐 나주에 소재한 엠스 테이호텔에서 AR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등 실감미디어 분야 산업 육성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및 상호협력 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실감미디어 기술관련 중장기 전략 및 추진 사업·성과 등이 공유되며 3D 데이터, 홀로그램 등 실감미디어 최신 기술 소개와 산업간 연계 등을 통한 기술 응용·확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컨퍼런스 후에는 실감미디어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며 가상변전소·철탑승주 등 전력·에너지분야에 시범 적용된 AR·VR 기술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전과 전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간 실감미디어 공동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전력ICT, 실감미디어 기술 융합 신산업 육성 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한전은 전력분야 특화 실감미디어 기술·콘텐츠 개발과 표준화 등을 담당하고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실감미디어 품질평가 기술 향상과 수요자 발굴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4월 미래부로부터 AR/VR기반 SW융합 클러스터 사업을 유치하여 AR/VR 플랫폼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가상현실 기반의 실감리 분야 콘텐츠, 증강현실 기반의 전력설비 유지보수 등 26개 기술개발 사업도 착수하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주여성 한국 배우기' 광주은행 2기 문화교실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이 24일 오전 광주은행 본점 8층에서 작년에 이어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 2기 개강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다문화가정 문화교실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과 어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광주남구다문화지원센터의 추천으로 선정한 20여명의 2기 수강생들에게 6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이미지 메이킹 수업, 가족공예 만들기, 전통음식 체험, 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문화수업을 펼친다.

정순자 광주은행 부행장은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다문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은행 꺾기 과태료 오늘부터 12배 인상

25일부터 은행의 꺾기에 대한 과태료가 종전보다 평균 12배가량 오른다.

꺾기는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에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예금·보통·펀드 등 금융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해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꺾기 과태료는 건당 평균 440만원으로 지금까지보다 12배 가까이 올라갈 전망이다.

꺾기 규제가 저신용자·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데다 대출자 대부분이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강매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꺾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정해 '은행업감독규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꺾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피해의 경중·고의성을 따져 기준금액 2500만원의 5~100%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

경기 풀린다는데... 소비심리는 싸늘

3월 소비자 신뢰지수 OECD 32개국 중 30위

최근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여전히 글로벌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들의 소비자신뢰지수(CCI)는 전월(98.81)보다 소폭 상승한 99.06이었다.

CCI는 향후 6개월 내 각국의 소비자 경기를 전망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호황, 100 이하면 침체를 뜻한다.

OECD는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지수(CSI) 등 각국에서 발표하는 소비심리 관련 지수를 보정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CCI를 산정·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CCI는 올해 1월 98.7포인트로 바

다를 전 뒤 2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상승세에도 지난해 한국의 CCI는 지금까지 통계가 집계된 OECD 32개국 중 30위에 머물렀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보다 CCI가 낮은 OECD 국가는 터키(96.76), 그리스(96.34) 등 2개 국가뿐이다. OECD 평균은 100.56포인트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CCI가 낮은 것은 지난해 말 산업 구조조정,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등 악재가 겹치면서 CCI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득 정체다. 지난해 가계의 월평균 명목 소득은 전년보다 0.6%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증가 폭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

소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진작책보다 구조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역 中企 8개사 베트남 식품박람회 참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주동필)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25~27일(현지시간)까지 3일간 '2017년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tel Vietnam 2017)'에 전남지역 우수 수출중소기업 8개사의 참가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9회째인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며 약 36개국 500여 업체가 참가하고 1만명 이상의 바이어가 찾는 베트남 최대 식품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해농식품, 좋은영농조합법인, 다솔 등 총 8개사가 전남관

을 구성해 전남 농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베트남 진출에 앞장설 예정이다.

주동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사드사태 등으로 아세안과 같은 신시장 발굴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류 영향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전남의 농수산식품을 소개하고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미르샘메디컬센터 | 임대분양
나주 대표 랜드마크형빌딩

나주의 중심상장부에 건립된, 최초 메디컬센터 5월 입주임박!
시외버스터미널~남고문을 잇는 중심상권 에 위치한 최고의 입지!

1층 767㎡ | 약국입점확정, 커피전문점, 편의점, 이동통신대리점, 브랜드의류, 축전문점, 대형전시장
2~5층 794㎡ | 이비인후과, 내과, 피부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등 전문병원 환영
6층 743㎡ | 전문병의원 및 뷔페 레스토랑 등 대형연회장 환영

친철상당 | 첨단길잡이 공인중개사사무소 (광산구, 대표 이현민)
062-972-8845 · 010-3635-5800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